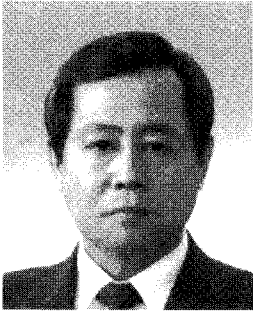


전기통신 표준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경배 / (주)데이콤 부사장

필자약력

- 1957 공군사관학교 졸업
- 1978. 12 공군 통신전자 학교장
- 1979. 2 공군 본부 통신감실 차감
- 1980. 3 국방부 합참 6국 차장
- 1981. 12 공군 7항로 보안단장
- 1984. 3 대우통신(주) 종합연구소장
- 1986. 1 기술 및 생산총괄 전무
- 1991. 1 (주)데이콤 부사장

전기통신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전기통신사업 자유화 및 통신 시장 개방이라는 통신환경 변화와 더불어 전기통신이 사회 기반 구조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이 분야의 기술이 경제 발전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전기통신 발전을 통한 경제력 강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표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표준을 세계의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표준화 작업을 시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국제 표준이 원활한 통신 소통 수단의 확보라는 순수한 역할로 부터 국제 시장의 지배나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주요한 산업 정책 수단으로 변모함에 따라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한 국가간, 지역간 또는 관련 업체간의 이해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TU에서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지난 '92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추가 전권 위원회에서는 ITU 조직을 표준화 분야(TSS: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전파분야(RS:Radiocommunication Sector), 개발분야(DS:Developement Sector)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따라 종전의 CCITT와 CCIR의 국제 표준화를 총괄 추진하게된 TSS의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가 지난 3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었고, 개편된 조직에 의한 ITU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89년 초에 한국통신기술협회를 설립하는 등 전기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화 마인드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10여 건의 TTA 표준을 제정하는 등 많은 발전을 하여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나라 전기통신 표준화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표준화 추진 체계의 정비 필요

전기통신 표준화 과제와 전망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표준 제정 시기와 중요도등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장기 표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인력과 기술력의 축적도를 보아 유선, 무선, 정보처리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온 표준화 업무를 일원화하여 중복성을 배제함으로써 표준화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표준화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표준화 작업 능력의 함양

표준화 작업 능력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물론 표준화 추진 기관, 사업자, 업체, 이용자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제 표준화 작업과 국내 표준화 작업과의 제휴이다. 전기통신의 국제화에 따라 국제 표준을 우선 신속하게 도입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국내 표준화 작업 결과를 국제 표준화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과 국내표준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정보의 원활한 유통, 교환, 작업멤버의 공통화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TTA의 표준화 조직 체계는 국내 표준 부문과 국제 표준 부문이 분리되어 있고, 운영 체계나 멤버의 공유도 부족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표준 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표준 부문과 국제 표준 부문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표준화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표준화 활동 참여의 적극 유도

표준 작업 능력의 함양이 우리나라 전기통신 표준 선진화의 요체이며, 이것은 표준화 마인드의 확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표준화 중요성의 인식에 의한 자발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누군가가 이를 일깨워 주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는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TTA 단체 표준 또는 국가표준 구현 제품은 공공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구매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연구기관외 연구개발부서와 표준화 추진부서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표준 작성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제적 표준화 활동참여 유도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지 모르나 그 효과를 보게되는 시점부터는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는 자동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 시외 적절한 개정 실시

기술 발전 추세에 순응하고 표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가기 위해서는 작성된 표준에 대한 적기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생각하여 표준의 백워드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 보급 체계의 강화

표준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서는 표준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홍보 활동의 강화,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등 정보 제공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표준 제품의 신뢰성 있는 보급과 이용을 위해서는 표준 제품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표준 적합성 시험 및 상호 연동성 시험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시험 체계 정비와 함께 관련 기술 개발을 국제적 협조를 통해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돌아가는 전기통신 표준화 환경, 즉 기술소유의 블럭화, 이들 표준화 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현상등이 기술 표준 해게모니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우선 국내 표준화를 적극 활성화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술 개발이 그렇듯 표준화는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투자 자세로 임해야 하며 따라서 우선은 정부,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는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도 통신의 호환성과 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동 작업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표준 작성을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전기통신 분야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은 지대하며, 표준화에도 그 결정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에 대한 인식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이기적 표준 결정권 행사보다는 장기적, 국익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 즉 정보화 사회를 이룩해야 하며 그 정보화 사회는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에 있다할 것이다.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은 전기통신 표준화 활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기통신 표준화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